

보도자료

보도 희망 일	즉시/제한없음		
배포일	2022. 4. 20.(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	문의	팀장: 장호식(031-5176-2211)
			담당: 최재영(031-5176-2214)

메타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 - 서울대, 카카오와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양해각서 체결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연면적 4만평 이상, 전력량 100MW 규모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 도시계획 인·허가 등을 거쳐 본 협약 체결하고, 2024년 착공 및 2026년 준공할 계획

□ 서울대학교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와 2022년 4월 19일(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 이날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최해천 연구부총장, 카카오 김성수 이사회 의장, 남궁훈 대표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 카카오 친환경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4만평 이상, 전력량 100MW 규모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M1 부지에 설립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가 설립 예정인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로 도시계획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 및 운영된다.

□ 서울대학교와 카카오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친환경 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간다. 카카오는 이번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대학교와 미래 산업에 대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특성화 사업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 우수 인재 교류 등 ESG 차원의 노력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설로 다양한 학문 분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뛰어난 인재와 연구 인프라가 카카오의 혁신적 플랫폼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 카카오 김성수 이사회 의장은 “이번 서울대학교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립 협력을 통해 카카오의 다양한 미래 사업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할 것”이라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ESG 차원의 사업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